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 미 증시, 4거래일 연속 급등 이후 상하방 요인 혼재 되며 혼조세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8일(월) 미국 증시는 미중 협상 혼선, 화웨이 고성능 칩 출시로 인한 엔비디아(-2.1%) 약세 등 하방 요인과 미 재무부의 국채발행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 빅테크 실적 기대감 등 상방 요인이 혼재 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3%, S&P500 +0.1%, 나스닥 -0.1%).

현재 S&P500과 나스닥은 지난 4월 초 연저점에서 각각 10.1%, 13.7% 반등하며 주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월 중 내내 극단의 공포 영역(0~25pt)에 머물러 있었던 CNN의 Fear & Greed index도 28일 현재 37pt로 공포의 영역(26~50pt)로 올라오는 등 투자심리도 이전에 비해 호전된 상태.

이제부터는 관세 그 자체보다 여진을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둘 필요. M7 실적, 4월 고용, 5월 FOMC, 4월 CPI 등 다음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된 대형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개별 실적, 개별 지표 결과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소지(ex: 관세 충격은 생각보다 강하며 지속력도 길 것이다 vs 관세 여진은 미미했으며, 실적,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과도했다). 또 미국과 중국 모두 협상 의지는 높지만, 여전히 협상 접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증시에 노이즈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당분간 증시 상단이 제한된 레인지 장세를 베이스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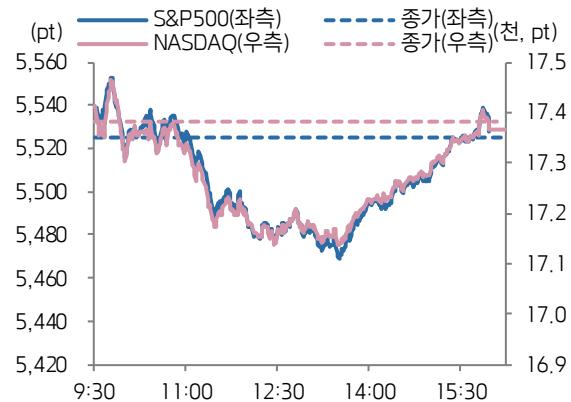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나스닥의 1%대 강세, 미국 소비지표 개선 등 미국발 호재에도, 관세 불확실성 재확산 속 코스닥 중심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파로 전강후약 장세로 마감(코스피 +0.1%, 코스닥 -1.4%).

금일에는 미국 증시의 혼조세 여파, 주중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 속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하이브 등 국내 개별 실적 결과를 확인하면서 종목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업종 측면에서는 미 재무부 국채 발행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전일 급락한 바이오주들의 주가 되돌림을 만들어 낼지 여부도 관건.

한편, 국내 증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4월 한달 동안 9.8조원 순매도하면서 2020년 3월 코로나 판데믹 (-12.5조원) 이후 월간 최대 순매도를 기록이라는 점이 난제로 남아있는 상황. 일간으로는 28일까지 20거래일 중 18거래일을 순매도하고 있으며, 순매도의 대부분을 반도체 등 IT, 화학, 철강,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 이는 대외 수요 변화에 미국 등 여타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한국의 주력 업종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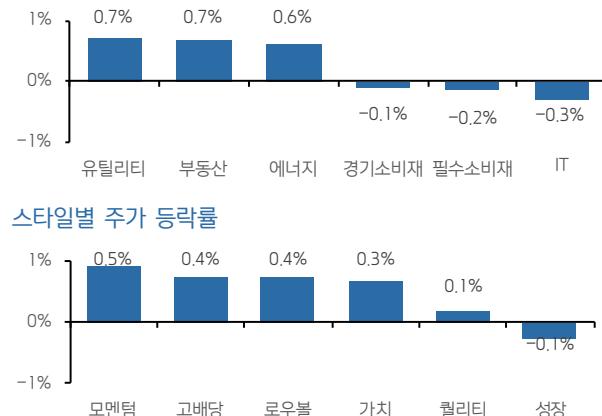
하지만 이들의 대규모 셀코리아에도, 유틸리티(20거래일 중 17거래일 순매수), 조선(11거래일), 상사, 자본재(9거래일), 호텔, 레저(18거래일), 소프트웨어(13거래일) 같은 업종은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 이들 업종은 경기 방어 성격, 관세 무풍지대에 해당하는 업종이자, 실적 가시성이 반도체, 자동차 등 여타 업종에 비해 나은 업종에 해당. 따라서,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는 포트의 일부를 이 같은 외국인 순매수 플레이 복제에 활용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

## S&amp;P500 &amp;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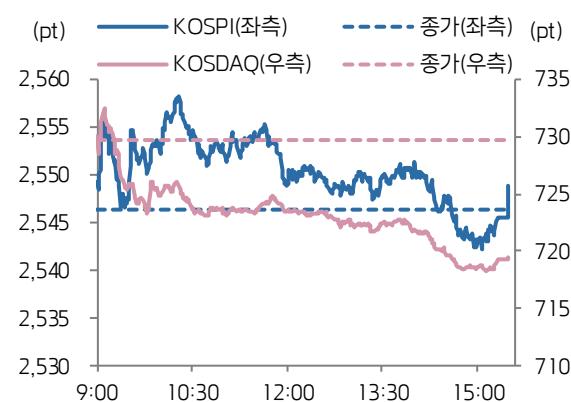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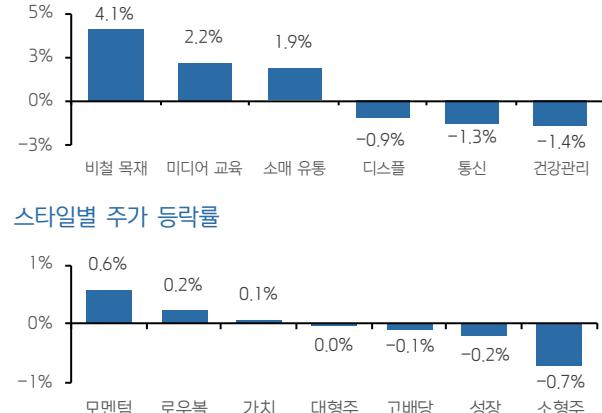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0.14	+0.41%	-15.99%	GM	47.24	+0.28%	-11.09%
마이크로소프트	391.16	-0.18%	-7.01%	일라이릴리	877.29	-0.82%	+13.83%
알파벳	160.61	-0.83%	-15.06%	월마트	95.22	+0.14%	+5.68%
메타	549.74	+0.45%	-6.03%	JP모건	243.22	-0.14%	+2.62%
아마존	187.70	-0.68%	-14.44%	엑손모빌	108.63	+0.06%	+1.89%
테슬라	285.88	+0.33%	-29.21%	세브론	140.10	+0.99%	-2.2%
엔비디아	108.73	-2.05%	-19.03%	제너럴일렉트릭	95.22	+0.1%	+5.7%
브로드컴	192.47	+0.08%	-16.73%	캐터필러	307.06	+0.2%	-14.64%
AMD	96.39	-0.26%	-20.2%	보잉	182.30	+2.44%	+2.99%
마이크론	78.56	-1.53%	-6.53%	넥스트에라	66.19	+0.2%	-6.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48.86	+0.1%	+6.23%	USD/KRW	1,436.80	-0.21%	-2.41%
코스피200	337.08	+0.06%	+6.06%	달러 지수	99.01	-0.46%	-8.74%
코스닥	719.41	-1.41%	+6.08%	EUR/USD	1.14	+0.48%	+10.3%
코스닥150	1,175.31	-1.67%	+4.03%	USD/CNH	7.28	-0.05%	-0.73%
S&P500	5,528.75	+0.06%	-6%	USD/JPY	142.01	-1.16%	-9.66%
NASDAQ	17,366.13	-0.1%	-10.07%	채권시장		가격	DTD(bp)
다우	40,227.59	+0.28%	-5.45%	국고채 3년	2,315	+1bp	-28bp
VIX	25.15	+1.25%	+44.96%	국고채 10년	2,590	+1.2bp	-28.1bp
러셀2000	1,965.55	+0.41%	-11.87%	미국 국채 2년	3,693	-5.5bp	-54.9bp
필라. 반도체	4,235.62	-0.38%	-14.95%	미국 국채 10년	4,208	-2.7bp	-36.1bp
다우 운송	13,559.92	+0.47%	-14.69%	미국 국채 30년	4,682	-1.9bp	-9.9bp
상해증합	3,288.42	-0.2%	-1.89%	독일 국채 10년	2,521	+5.2bp	+15.4bp
항셍 H	8,080.19	+0%	+10.84%	원자재 시장		가격	DTD(%)
인도 SENSEX	80,218.37	+1.27%	+2.66%	WTI	62.05	-1.54%	-11.57%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65.86	-1.51%	-11.76%
Eurostoxx50	5,170.49	+0.32%	+5.61%	금	3,347.70	+1.49%	+24.35%
MSCI 전세계 지수	827.21	+0.3%	-1.68%	은	33.01	-0.02%	+12.87%
MSCI DM 지수	3,628.48	+0.28%	-2.14%	구리	484.05	+0.01%	+20.22%
MSCI EM 지수	1,102.57	+0.5%	+2.52%	BDI	1,373.00	+1.48%	+37.71%
MSCI 한국 ETF	55.65	-0.29%	+9.35%	옥수수	483.25	-0.46%	+3.0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31.00	-2.57%	-6.76%
비트코인	94,506.03	+0.22%	+0.85%	대두	1,062.50	+0.31%	+2.68%
이더리움	1,786.67	-0.91%	-46.61%	커피	410.05	+2.55%	+32.9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다.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